

제주 중문관광단지 매각 다시 '기지개'

한국관광공사, 매각 협상 재개 방침 제주도에 통보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협상 기한은 올해 말 복수 평가법인 통해 가격 산정... 3000억 수준 예상

대통령 지시로 중단됐던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이 재개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KTO)는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매각 방침을 유지하겠다"며 인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그달 중순 KTO에 공문을 보내 "중문관광단지 인수 협상을 보류할 지 아니면 매각 의사 자체를 철회할지 결정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O는 의사 결정권자인 공사 사장이 공식이라는 이유로 수개월째 판단을 미뤘었다.

올해 1월 박석혁 선임 공사 사장

이 취임한 후 공사 측 중문관광단지 인수 협상 실무진이 이달 초 제주도를 방문했지만 당시에도 매각 재개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KTO 관계자는 "제주도 방문 직후 사장에게 매각 이슈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후 공사 내 의사 결정 기구를 통해 매각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각 협상에선 제주도시사의 의사 결정이 중요만큼 인수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재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KTO는 분양이 끝난 중문관광단지 내 부동산을 제외한 중문골프장 등 토지 156만7334㎡와 건물 1만5353㎡를 매각하기로 하고 2023년

7월 제주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양측의 실무 협상은 2023년 11월 1회, 2024년 12월 1회 등 단 두 차례에 그쳤다.

매각 협상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사 사장이 202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10개월간 공석이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KTO는 공사 사장의 부재에도 지난해 말 3차 실무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양측은 인수 논의 핵심인 가격 협상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KTO 측은 인수 대금을 미리 추산하기 위해 탁상 감정(현황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마친 상태로, 앞으로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와 공원 등 제주도에 무상 귀속할 대상을 확정된 뒤, 이를 뺀 나머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나서게 된다.

감정가는 양측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사를 토대로 산정

하게 되며, 이후 두 감정가의 평균값을 토대로 가격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올해 내에 가격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문관광단지 인수 논의는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매각 협상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을 기해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감정평가 법인이 매긴 감정가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적이다.

한편 2009년과 2014년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추진될 때마다 제주도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재원이 부족하거나 매각 가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매번 결렬됐다.

가장 최근인 2014년 협상에서 KTO 측은 감정평가대로 중문골프장 1050억원, 잔여 토지 460억원 등 약 1500억원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공시지가의 60~7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재 중문골프장만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관광업계는 중문관광단지 전체 매각 대금이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삼민기자



오영훈 제주지사,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합동토론회 본경선 앞둔 4월 7일쯤 개최 유력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제주 도시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될 합동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명의 후보 중 누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적임자인지 도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일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

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토론회를 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경선이 확정된 타 지역의 합동토론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제주지역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일정이 수립되는대로 공고할 계획이다.

제주 경선이 오는 4월 8~10일 진행될 때에 합동토론회는 본경선 전인 4월 7일쯤 개최가 유력해 보인다. 국회·부미원기자



유채밭 속에서 만끽하는 제주의 봄. 19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도로변에 있는 유채꽃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인천 하늘길 10년 만에 부활

국토부 "5월 운항 목표"

제주와 인천을 잇는 국내선 하늘길 이르면 5월 신설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계(3월 29~10월 24일) 국내선 정기 항공편이 12개 제주 노선 등 20개 노선에 주 1806회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 노선은 주 1534회 운항으로, 지난해 하계(주 1558회)에 견줘 주 24회 감소했다.

국토부는 또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 개선을 추진, 이르면 5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노선 중단 후 약 10년 만의 재개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 입국자가 지방공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노선의 신설·증설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인천 노선 신설과 관련해 현재 항공사와 협의 중인 단계로 아직 취항 항공사와 운항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이숙기자 ms@ihalla.com

교육감 선거 단일화 '주목'... 2면 / 길잃음 사고 10명 중 4명 "고사리 꺾다가"... 4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eju 제주시

제46회 전국경연대회
2026.09.11. - 09.16.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주시가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주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추가 지원 정부 지원(50~80%)과 중복 지원 가능 최대 5년(60개월) 지원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

01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02

지원사업 신청
(읍·면·동 방문)

03

지원지역 확인
(제주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

신청 절차
(제주시 → 신청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향후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병행 예정

문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2